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인류평화 열쇠는 어디에

본래 부처인 증생.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본래 부처라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지옥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사스공포와 대구지하철참사.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탐욕이다. 탐

욕의 그늘을 헤쳐나갈 길은 없는가? 부처님은 이 탐욕의 세상에 어떤 평화의 소식을 전하시는 지도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과 박이문 연세대 초빙교수의 대화를 통해 들어본다.

전쟁·핵개발 탐욕의 共業 무명 걸어낼 때 밝은 세상

법륜= 부처님 평화사상의 핵심을 '마음의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들떠있고 갈등 속에 있는데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하는 것은 탐진치 삼독 때문입니다. 계정에 삼학을 막으라고 하는 것도, 말과 행위로서 타인을 해치지 말고 타인을 이롭게 하라는 오계의 가르침도 평화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박이문= 제가 보기에는 불교의 교리 자체가 평화적입니다. 불교는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여 마음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부처님이 욕심을 버리라고 말한 것의 철학적 바탕은 평화입니다. 자비의 가르침은 남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이야말로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륜= 폭력의 경우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불교는 정당방위도 안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더 큰 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용인됩니다. 계율 보다는 원력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박이문= 불교가 비폭력을 주장하는데 어디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호국불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국불교는 나약한 사람의 방어적 측면에 근거가 있지만 크게 보면 비불교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종교를 떠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호국불교는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구실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호국불교의 경우 진리에 의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륜= 호국불교는 민족애와 불교가 결합된 것입니다. 대중적인 근거로는 더 큰 화를 막고, 민중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호국불교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한 채 방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불교적으로 승화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이문= 어떤 점에서 불교와 평화가 관계가 있는지도요? 어느 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다른 문화와 갈등을 빚

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그 갈등의 폭이나 빈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갈등이 상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 하기 때문이지요. 나아가 이들은 각 나라가 지닌 문화의 특수성도 부정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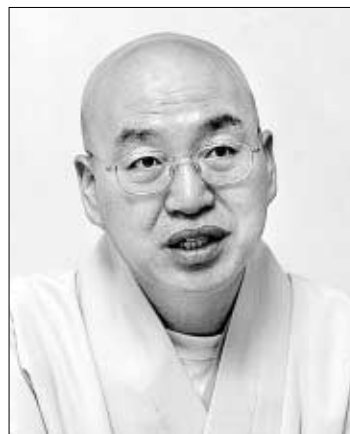
법륜= 이라크 전쟁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후세인이 이라크에서 인권을 탄압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법륜 스님 대담 박이문 교수

약력

1983년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상임 지도법사, 85년 중앙불교교육원 원장, 88년 정토회 설립, 91년 불심도문스님으로 부터 보살계 및 비구계 수지, 2002년 막사이사이상 평화상을 수상, 현재 정토회 지도법사. 대표적 저서로는 실천적 불교사상, 인간본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불교와 환경, 불교와 평화 등.



대담

약력

1964년 프랑스 소르본대학 불문학 박사, 1970년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철학박사. 미국 시몬스대 교수를 거쳐 포항공대 철학과 교수로 정년퇴직. 현재 미국시몬스대 명예교수, 연세대 초빙교수. 대표적인 저서는 '자연 인간 언어' '이성 합리성 가치' '예술철' '나의 출가' 등.



어떠한 경우든 폭력사용은 안돼 북핵문제 대화 통한 해결이 최선

법륜=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이용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을 지켜야지 현실이나 이익에 따라 힘을 이용한다면 더 큰 모순에 빠집니다. 1600년의 한국불교 역사를 내세워 지나치게 기복 및 권력과 결합한다든지 배타성을 가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이문= 세계화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특정한 집단이나 국가가 정치 경제적으로 독점하

에 이라크에서 반후세인 운동이 일어나면 미국이 지원할 수는 있어도 이를 구실삼아 침공하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북한 핵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허무맹랑 포기하고, 민중의 생존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박이문= 북한의 인권 및 난민 보호에도 나서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인권과 주권의 문제가 중요한 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이 풀리지 않을 때 주권 문제가 있

세계화 될수록 평등가치관 중요 상대방 문명 존중 인류공존 가능

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것입니다.

법륜= 독자이며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후세인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이스라엘은 40년간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라크만 침공한 것은 잘못입니다.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해결할 수 있고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대응하면 평화의 미명하에 또다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박이문= 절대적으로 평화를 강조하지만 현실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고민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가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문화적 보편성을 찾아내 공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정의, 공정성 등은 세계가 공유해야 할 가치입니다. 또 국가간, 문명간의 대화와 함께 상호 존중이 필요한 시기라 봅니다.

법륜= 우리 민족의 현안으로 남북문제가 제일 큼니다. 새로운 한국전쟁은 전면전으로의 확대가 불가피 합니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폭격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기지를 보복공격 할 것이고, 한미동맹조약에 의해 한국군이 참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이문= 세계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권력을 누리려는 일종의 심리상태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 같은 허망함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랄까요? 가치관에 대한 계몽이 필요할 것이지요.

법륜= 세계 인류가 함께 살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은 근본적인 무지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연기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불교가 나서야 합니다.

박이문= 자기만의 좁은 세계를 벗고 넓은 가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갈등이 없으려면 서로 공경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는 대립방식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법륜= 이 세상은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바탕하여 항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줄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은 교육과 성내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은 무명입니다. 결국 좀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쓰면 잘 사는 것을 문명 발전의 척도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물질 풍요를 숭상하는 일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리=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사진= 고영매 기자 yjgo@buddhapia.com

대한불교일불선교종 비상종단 출범 및 유지재단 허가취소 촉구 결의문

1. 일불 큰스님이 창종한 대한불교 일불선교종과 유지재단 설립목적

일불 큰스님은 1932년 불문에 귀의하신 후, 불국사주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장, 원로의원 등, 56년간 조계종에 봉직하시고 1974년부터 직계 은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 "일불선원"이라는 사찰을 창건하여 그곳에 주석 하셨던 바, 평생을 수행과 포교로 일관하셨던 국제적인 고승이십니다.

일불 큰스님은 국내외적으로 선교양종의 종지종풍을 신앙하고자, 조계종을 떠나 1988년 "대한불교일불선교종"이라는 "불교종단"을 창종하고 초대종정에 취임하시면서 종단의 종무행정을 총괄하는 종무원 청사를 위 "일불선원" 2층에 두었던 바, 현재 대한불교일불선교종은 국내 860여개, 해외 3개의 사찰과 국내외 1천6백여 명의 제자법사와 승려 그리고 50여만 명의 신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일불 큰스님은 자신이 입적한 이후에도 종단을 영구히 보전하고자, 1991년 "일불선원"을 정전으로 종단 소속사찰 중 주유사찰로 분류되는 서울 천간사·인천 호불사·제주 법성사·의령 일봉사 등 5개 사찰의 자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불선교종"이라는 "유지재단"을 설립 하셨습니다.

2. 일불 큰스님의 입적한 이후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의 현실

본래 종단이란 창종주의 종지종풍으로부터 출발하여 법통과 정통성을 생명으로 이어가는 바, 이러한 종단의 근본이나 유지재단의 설립목적도 알지못하는 일부 무도한 유지재단의 이사들이 1996년 일불 큰스님께서 입적하시자, 종권을 차지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종단내 분을 조장하는 등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행하였던 바, 그 사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한불교일불선교종을 창종하신 초대종정 일불큰스님의 법통과 정통성을 이어 2대 종정으로 취임한 봉해스님께서 엄연히 종단 대표자로 개직하여 오던 중, 일부 무도한 유지재단의 이사들은 종단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종단의 권위와 유지재단의 기능을 간파한 채,

서울 종로구 신영동 일불선원에서 소재하는 종단 종무원과는 별도로 서울 성북구 수유리에 소위 종단 종무원을 개설하고, 2000년 12월 11일 서울 새계동 모 중국집에서 이미 종단을 발족했던 자를 앞세워 소위 종정을 추대하여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우리 종단의 진정한 대표자가 이룬 것처럼 위장하여 등록을 필하도록 하므로 종도들과 종단의 행정을 혼란 시켰습니다.

나) 또 유지재단은 종단의 종권을 전담하기 위해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 봉해스님을 비롯하여 종무원장 봉암스님·종회의장 현각스님 등을 상대로 사법부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소송을 제기 하였던 바,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이 확정되므로, 결국 사법부가 유지재단에게 종단의 법통과

정통성이 일불선원 종무원에 있는 종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결과라고 하겠습니까.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 179, 서울고등법원 2000다 220)

사실이 이렇진대 유지재단은 마땅히 서울 성북구 수유리에 개설했던 종단 종무원 사무실을 근거지로 펼쳐온 종무행정을 즉각 철수하고, 아울러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했던 회원종단 대표자 명의로 바로잡아 그동안 종단을 무시하고 종도들을 혼란시킨 과오에 대해 깊이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 그러나 유지재단 이사회는 다시 종단 소속사찰 주지임원에 대해 종무원장만이 할 수 있는 정관 및 종헌, 종법을 무시한 채, 일불선원 주지를 함부로 임·면하고, 불법한 사용료를 강요하는 등, 집달관을 통해 종단 종무원을 거리로 내몰고, 일불 큰스님 생전초소를 긴 쇠사슬로 잠금장치를 하였습니다.

라) 또 유지재단 이사장 김도 승려는 일불 큰스님의 직계 은사들과 대화도중 유모 승려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가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피소되어 수사 중에 있는가 하면, 다시 일불선원에서 30여 년간 일불 큰스님을 모시고 살아온 일불선원 주지스님을 상대로 법당과 공양간을 비우라고 상상도 못할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종단은 그동안 종명 사용에 따른 혼돈과 유지재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평소 일불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온 많은 분들과 불자님들께 큰 실망을 안겨주기에 이르렀습니다.

3.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이 비상종단으로 출범하게 된 배경

본 종단은 불교종단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으로 출범하여 동 종단을 영구히 보전하고자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자금의 유지재단은 상기의 내용과 같이 그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지난 3. 29 종정스님께서 특별 "교시"를 발표하신 데 이어 원로스님들의 뜻을 모아 "종정교시 불행동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정스님께서 지난 4. 9 일불선원에서 비상종단 출범에 따른 종명을 선포하는 동시에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비상종단 출범식"을 가진 바였고, 이에 우리 종단은 향후 한시적인 비상종단체제로 종무원·사정원·법제원을 운영하면서 종헌, 종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불교의 본래 목적인 승가회합과 대중교화에 매진할 노력을 실천하여 여타 종단의 모범이 되는 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에 유지재단의 철폐에 따른 종단내분을 종식시키고 종단운영을 정상화 하는 동시에 갖은 문 제점을 드러낸 유지재단의 법인허가 취소를 서울시에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4.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법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이유

본 법인의 임원자격을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의 유지재단인 "재단법인"에 제산을 출연한 자료 선의로 되어 있으나, 무자격한 자들을 무원칙적으로 이사에 선임하여 편의에 따라 수시로 정관을 변경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등, 더 이상 본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는 바, 그 사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 법인의 첫 번째 목적은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소속사찰을 불교재산으로 영구히 유지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 법성사 및 금강유치원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매각 또는 강제처분 되었습니다.

나) 본 법인의 두 번째 목적은 "사찰간 상부상조와 공조체제를 강화"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종단분규를 조장하고, 종단의 최고지도자인 종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종단 행정사무를 혼란시켰습니다.

다) 본 법인의 세 번째 목적은 "이성적인 불교공동체를 실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 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직업안정법, 출입관리법등을 위반하면서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주도하다가 사적당국에 적발되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지재단에 출연된 사찰들의 각종 수입금은 엄연한 유지재단의 공금인 바, 이에 대한 감사기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입금이 어디로 전용되는지 전혀 알수 없고, 일부 유지재단에 출연된 사찰들은 이미 사찰이 아닌 창건주 속세가족들의 생활터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바 지금의 유지재단은 이미 그 설립목적 상실했고, 더 이상의 존립가치를 잃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단차원의 전체회의를 통해 유지재단의 법인허가 취소를 주무관청에 촉구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서울시는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의 유지재단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에 대해 비정상적 실태를 즉각 조사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설립자인 일불 큰스님의 유지에 따른 법인의 모든 제산을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으로 귀속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7(2003)년 4월 29일

대한불교일불선교종	종	정	봉	암
	총	무원	장	법
	법	제	원	장
	총	도	일	동